

VISION

科學技術政策情報가 國家科學技術을 左右

金 鎮 炫
(科學技術處 長官)

지금 世界는 21세기의 強者를 誕生시키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는 過渡期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先進國들은 우리 나라와 같은 開發途上國의 先進圈 進入을 막고 그들의 권익과 국제 지위를 지속적으로 維持하기 위한 保護膜으로서 자기들의 앞선 기술을 獨占하는 한편, 그 기술을 더욱 發展시키려는 兩面 戰略을 추구 하고 있습니다.

UR 協商에서는 市場開放과 知的所有權 保護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머지 않아 각국의 技術開發活動까지 開放시키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의 적극적인 對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1년 6월 4-5일에 열렸던 OECD閣僚理事會의 科學技術政策宣言이 바로 그 전조입니다.

이와 같이 급박하게 움직이는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科學技術의 革新을 主軸으로 지난 5천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해 왔던 先進圈 進入의 꿈을 다가오는 21세기 초까지 반드시 實現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의 民族史的 召命이며 責務입니다. 또한 우리 5千萬 韓民族의 가슴 속에 간직되어 있는 民族自尊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모든 주권의 원천이 되는 技術主權을 먼저 확립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世界各國의 科學技術發展 動向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 가고 있는 科學技術政策 動向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분석·평가하여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은 개발 도상국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결정되고 있는 世界의 技術秩序 動向에서 잠시라도 눈을 돌리면 우리는 우리가 진입하려는 선진국 대열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情報의 蒐集·分析·加工·生産·流通의 競爭力이 바로 기술과 생산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科學技術情報의 競爭力은 우리 나라 產業·貿易·外交의 향방을 가름하는 核心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사회를 情報化社會, 知價社會라고 하듯이, 科學技術知識에 대한 情報, 科學技術政策에 대한 情報가 없으면 우리는 世界의 中心舞臺에서 활동하는 主役이 될 수 없고 영원히 지구상의 極東邊方에 위치한 초라한 역할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분명히 지금 이 世界의인 過渡期에 선진국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外國의 技術과 主權에 우리의 運命을 依支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國內外의 趨勢를 바로 읽고 이에 대응하는 데 寄與하기 위하여 科學技術政策研究所에서 『科學技術政策動向』을 定期的으로 發刊하게 된 것은 우리 과학 기술의 앞날을 위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良質의 풍부한 科學技術政策情報를 迅速하게 入手·분석하여 널리 提供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